

성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 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재창 임용자

홍익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인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태도,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을 받는 진로 동기들, 전공의 여성구성비율, 수학(math)회피 등의 변인들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 유형과 전통적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성다수" 학과 200명, 성균행학과 200명, "여성소수" 학과 200명을 유층화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인들은 성역할 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남성성과 여성성, 성역할 태도, 성역할의 영향을 받은 진로동기들인 성공회피, 진로와 가정 갈등, 중요남성의 영향, 그리고 전공의 여성구성비율, 수학(math)회피 등 8개이고, 종속변인은 진로유형의 전통성과 직업 전통성의 2개의 변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대생으로 하여금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5개이고, 전통적 직업선택을 하도록 하는 변인들은 3개이다.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진로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남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며, 남성성이 낮거나, 남성성은 낮은 동시에 여성성이 높은 유형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지거나, 수학(math) 회피를 많이 하거나, 성공회피를 많이 하는 여대생들은 그 반대의 특성을 가진 여대생들 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직업선택에 있어서는 여성구성비율이 높은 여성다수학과를 전공하거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거나, 여성성을 많이 가지거나, 남성성은 낮은 동시에 여성성이 높은 유형인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여대생들은 더 전통적 직업선택을 한다. 결과적으로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태도, 성역할 관련 진로동기들, 전공의 여성구성비율, 수학(math) 회피 등의 요인은 여대생의 진로유형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과 그리고 그 변인들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방식들은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유용하다.

최근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진로발달이론들은 주로 남성의 연구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진로연구에 적용시키기에 불충분하며 부적절하다(Fitzgerald & Crites, 1980; 김충기, 1989; 이재창, 임용자, 1993). 적어도 진로기회의 진정한 성평등 구조가 이루어지고 사

회의 모든 분야에 남녀의 성평등의 결과가 확산될 때까지 남성보다 더 복잡하고 다른 여성의 진로발달이론이 별도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진로상담에서 다루어질 여성의 진로선택의 목표 역시 남성과 다르다. 즉 여성의 진로선택의 목표는 첫째, 여성의 진로선택을

여성다수(female dominated) 직업이나 핑크 칼라 직종(pink collar job)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나아가서 남성다수(male dominated) 직종에 이르기까지 전체영역으로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둘째, 진로선택에서 여성의 능력과 재질을 사장하지 말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Betz & Fitzgerald, 1987, p.250).

Parsons(1909) 이래 오랜동안 진로발달과 상담연구의 가장 중요한 축점이 개인의 성격과 환경사이에 조화로운 최적 진로선택이라는 개인-환경의 조화라는 진로선택의 현실성(realism), 또는 일치성(correspondence, congruence)이라는 개념에 맞추어져왔다. 그러나 Holland의 성격-직업의 일치성을 여성연구에 적용한 결과들은 Holland 이론이 주로 남성의 연구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용하기 힘들다고 지적된다(Fitzgerald & Crites, 1980).

여성연구에 적용된 Holland 이론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그 적용의 부적절성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경우 첫째, 개인의 성격 및 자아개념에는 성역할 지향성(sex-role orientation)이 강력한 중계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지각에 혼돈과 장애가 초래되며 둘째, 직업지각과 직업선택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으며(Yanico, Hardin & Mclaughlin, 1978) 셋째, Holland의 분류체계 중 특정한 직업환경은 직업사회내에서 여성에게는 폐쇄되어 있으며(Fitzgerald & Crites, 1980) 넷째, Holland의 직업 범주는 직업내적 요인인 사물 대 사람, 자료 대 관념이라는 차원에 의한 분류이므로 직업외적 요인인 직업위신 특히 성역할에 관련된 직업위신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다(Raphael & Gorman, 1986).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Super의 자아개념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Super의 자아개념 이론이 남성과 다른 여성의 자아발달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된다. 남녀의 각기 다른 사회화로 인하여 남녀는 각기다른 자아발달과 진로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McDonald, 1991).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개념으로 인하여 자아개념 및 자존감은 성차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아개념을 여성의 진로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덜 타당하다고 지적된다(Capurso & Blocher, 1985; Lawrence & Brown, 1976; 김현옥, 1989; 조석민, 1991). 즉 성역할 정체감 중에서 남성성(masculinity)은 자아개념과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여성성(femininity)은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Bassoff & Glass, 1982; Helson & Picano, 1990) 여성들은 여성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충족시키거나 활용하지 못한다(Betz, Heesacker & Shuttleworth, 1990; Betz & Fitzgerald, 1987). 따라서 사회적 성자아개념(gender self-concept) 및 사회적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이 개인의 성격 및 직업행동을 설명하는데 자아개념보다 더 중추적이고 보호적 측면으로 설명된다. 즉 Gottfredson(1981)에 의하면, 여성들은 마지막 직업선택의 한계(circumscription)와 타협(compromise)과정에서, 가장 초기에 발달된 사회적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이 흥미와 가치에 대한 자기 지각보다 자아개념에서 더 기초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직업영역의 부조화나 괴리는 잘 참아낼 수 있어도 성유형화된 직업지위와 위신의 괴리는 가장 못 참는다고 하였다. 결국 아동들의 초보학습에서 인식된 고정관념적 이미지들에

의하여 인종, 성, 및 상황에 따라 “전통적” 직업을 추구하게 된다.

주요 진로이론가들 중에서 오직 Super (1957)만이 남성과 다른 여성의 진로유형 (career pattern)의 분류를 제공함으로써 진로이론의 연구를 여성에게 확대시키는 진지한 시도를 하였다. Super(1957)의 7가지 여성의 진로유형과 이에 기초한 후속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진로유형에 포함된 여성의 진로지향성 (career orientation)의 개념은 남성의 것과 다르다. 즉 여성의 진로지향성은 여성의 취업기간의 길고, 짧음이라든지 또는 취업기간의 단절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여성의 생애와 관련된 진로유형의 범주들로 묘사된다. 즉 여성의 진로유형에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결정되는 결혼 및 육아와 관련된 가정적 역할을 수용하기 때문에 취업기간의 문제가 중요시된다. 따라서 여성의 진로지향성 개념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 - 전통적 여성역할 또는 비전통적 여성역할-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 (Orcutt & Walsh, 1979), 이와같은 관점이 포함된 여성의 진로유형개념에는 결혼 및 가정과 직업역할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이 잘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사회변화 중에서도 매우 신속하고 빠른 여성의 진로변화를 기술하는데는 여성의 진로유형개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여성의 직업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진로행동을 나타내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Jenkins(1989)는 여성의 진로결정을 가정(결혼)과 진로 사이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직업을 결정하는 두 단계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진로지향성 (career salience)은 남성과 달리 여성

이 우선적으로 가사노동과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노동에 어느정도 참여하느냐를 결정하는 일과 그 다음에 직업선택으로 전통적 직업과 상대적으로 비전통적 직업영역을 선택하는 정도라고 규정한다(Almquist & Angrist, 1970). 이와 같은 두 차원의 여성진로연구는 여성의 진로유형연구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Super의 여성진로유형에 기초한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취업기간의 개념을 다루기도 하였지만, Betz(1984)는 취업기간 이외에 여성의 직업참여의 정도를 “남성다수” 직업 (male dominant job)과 “여성다수” 직업 (female dominant job)으로 구분하고 취업기간을 저(low), 중 (medium), 고(high)와 결합시키고 직업 무경험이라는 범주를 첨가하여 7가지 여성진로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진로의 변화를 잘 기술하였다.

여성의 성취동기는 남성과 다르므로 진로동기 역시 다르다고 주장된다. 여성의 성취동기로 언급되는 성공회피동기 (motive to avoid success) 또는 성공공포 (fear of success)는 여성성 (femininity)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비여성화 공포 (fear of defeminization)로 알려져 있다. 또 진로와 가정, 성취와 친애 동기등은 상호배타적이므로 진로선택과정에서 선택불안인 역할갈등 및 역할 긴장이 야기된다 (Farmer, 1971, 1984; Karpicke, 1978, 1980, Stake, 1979; Greenglass & Devins, 1982). 성인여성들의 진로상담에서 심각하게 야기되는 심리적 장애는 가정과 진로 역할 사이의 갈등이다. 여성의 진로선택이 가사와 직업사이의 의사결정이고, 이 결정은 가사의 요구와 특정진로의 기회구조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개인적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가 하면, 여자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지각으로 인하여 이러한 역할갈등을

현실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므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여 진로포부를 회피한다. 여학생들의 수학(math)공포 또는 수학(math)기피현상도 수학과 관련되는 직업특성들이 전통적 성역할과 배타적이고 모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Betz, 1978; McDonald, 1990). 결과적으로 진로동기 및 진로지향성이 강한 여대생들에게 역할갈등이 초래되고 비전통적 진로를 추구하는 여성에게 전통적 성역할은 장애를 준다. 따라서 여성의 진로발달 및 비전통적 진로선택이라는 진로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요타자 및 중요남성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과 가설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전통적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통적 직업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와 범위를 제한받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이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정체감은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둘째, 성역할 태도는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셋째, 성역할과 관련된 진로동기률-성공회피, 진로와 가정갈등, 중요남성의 영향은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네째, 전공학과의 여성구성비율은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가를 밝힌다.

다섯째, 수학(math)성적은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다.

여섯째, 성역할과 관련된 제 독립변인들은 상대적으로 여대생의 진로유형선택 및 직업선택에 각 각 기여하는가를 밝힌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진로유형의 선택 및 직업선택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a. 남성성이 낮은 여대생들은 남성성이 높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b. 여성성이 높은 여대생들은 여성성이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1-c.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여대생들의 진로유형 및 직업선택의 전통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여대생들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인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3〉 성역할과 관련된 진로동기가 높은 여대생들은 그 동기가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인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a. 성공회피동기가 높은 여대생들은 그 동기가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b. 진로와 가정갈등이 높은 여대생들은 그 갈등이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c.중요남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대생들은 그 영향을 적게 받는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4〉 여성구성비율이 높은 학과의 여대생들이 그 비율이 낮은 학과의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5〉 수학(math)회피가 낮은 여대생들이 회피가 높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가설6〉 전통적 진로유형의 선택과 전통적 직업선택에 기여하는 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크기는 각각 다를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서울과 지방 소재의 4년제 대학교 여대생들이었다. 표집방법으로는 서울 시내 3개 대학과 지방 3개의 대학에서 여성다수(female dominant)학과의 여대생 200명, 성균형(sex-neutral)학과의 여대생 200

명, 여성소수(male dominant)학과의 200명을 다음과 같이 유층화(stratified) 표집하였다. 첫째, 여성다수 학과, 성균형 학과, 여성소수 학과의 세 범주의 분류를 위해 문교통계연보(1990)에 의하여 4년제 대학의 각 학과의 남녀구성비율을 구한 후, 여성구성비율이 80% 이상인 학과를 여성다수학과, 40~60%인 학과를 성균형 학과, 20% 미만인 학과를 여성소수학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학과를 대상으로 각각 240명씩 총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대상자 총 642명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지와 직업선택을 미결정한 응답지 3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611부 중에서 여성다수 학과, 성균형 학과, 여성소수 학과에 200명씩 표집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11부를 제외하였다. 표집 대상자수는 다음 표 1과 같다.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19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걸쳐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성역할 정체감 검사

표1. 표집 대상자

	여성다수학과			성균형학과			여성소수학과			계
	가정 관리	유아 교육	간호	영어 영문	생물	사회 사업	경영	무역	공학	
서울	34	33	33	32	32	36	34	34	32	300
지방	32	34	34	33	33	34	33	34	33	300
계	200			200			200			600
%	99.6	99.2	99.8	50.3	48.3	56.1	11.8	14.4	0.3	

(%)는 문교통계연보(1990)에 의하여 각학과의 여성구성비율을 산출한 것임.

성역할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검사하는 도구로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로서, 이 도구는 두 차례의 연구(이재창, 임용자, 1993; 임용자, 1994)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검사이다. 임용자(1994)의 연구에 사용한 이 검사는 남성성 13문항 여성성 13문항 등 총 26문항으로서 남성성은 주동성과 공격/지배성으로, 여성성은 이타성과 연약성 등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 .85, 검사 재검사 신뢰도 $r = .89$ 였다. 이 검사에 의해 성역할 정체감 유형을 분류한 방법은 Marschall과 Wijting(1980) 그리고 임용자(1994)와 같이 남성성 여성성은 각각 집단의 평균치로 분할(mean-split)하여 남성성이 평균치 보다 높고 여성성이 평균치 보다 낮으면 남성적(masculine)으로, 여성성이 평균치 보다 높고 남성성이 평균치 보다 낮으면 여성적(feminine)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평균치 보다 높으면 양성적(androgynous)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 평균치 보다 낮으면 미분화적(undifferentiated)으로 분류하였다.

2) 성역할 태도

이 검사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단축형 AWS(Attitudes toward Woman Scale)과 정영숙(1986)의 성역할 태도검사를 번안 수정하여 두 차례 연구(이재창, 임용자, 1993; 임용자, 1994)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검사이다. 임용자(1994)의 연구에 사용된 이 검사는 총 21개 문항으로 사회적 권리와 자유, 가정의 권위구조, 여성적 성격, 직업능력 등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신뢰도는 Cronbach = .90, 검사 재검사 신뢰

도 $r = .74$ 였다.

3) 성역할 영향 진로동기 검사

이 검사는 임용자(1994)가 Karpicke(1978)가 개발한 RICPS(Relationships Influencing Career Planning Scale)의 62 문항을 번안 수정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검사이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총 38 문항은 성공회피 동기, 진로와 가정(결혼) 갈등, 중요남성의 영향 등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 .92, 검사 재검사 신뢰도 $r = .85$ 였다.

4) 진로유형 및 직업의 전통성

전통성(Traditionality)의 개념은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녀성의 사회적 역할 분포 -가정과 직업사이의 분포, 직업사이의 분포-에 대한 지각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적합하다고 전통적으로 규정된 선전형적 또는 비선전형적 진로 및 직업선택을 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유형의 전통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용자(1994)의 연구에서 개발된 여성의 진로유형 지수(Career Pattern Index)를 사용하였다. 즉 여성의 진로유형을 직업형(1.0), 병행형(1.9), 단절 후/재취업형(2.8), 임시직업/주부형(4.0), 결혼 후/전업주부형(4.8), 전업주부형(5.9) 등 6가지 진로유형을 짝짓기 비교방법(Pair Comparison)을 통해 1.0에서 5.9점 사이로 연속척도화 시킨 CPI지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진로유형이고, 낮을수록 비전통적 진로유형으로 정의된다.

직업 전통성의 측정치를 위하여 임용자(1994)가 Shinar(1975)의 방법으로 측정한

102개의 직업 전통성 지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전통성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각 직업에 대하여 1~5점 척도로 측정된 지수로서 그 점수가 높을 수록 여성다수 직업으로 전통적 직업이고, 낮을수록 여성소수 직업으로 비전통적 직업이라고 정의된다.

3. 자료처리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각 독립변인에 따르는 종속변인인 진로유형 및 직업의 전통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 성역할과 관련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진로유형과 직업의 전통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알기 위하여 각각 단계적 중다

회귀(multiple stepwis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성역할 정체감에 의한 결과

남성성의 수준에 의한 진로유형과 직업의 전통성의 검증결과(표 2)는 남성성이 진로유형의 선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뿐, 직업선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성성이 높은 여대생은 남성성이 더 낮은 여대생 보다 더 비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다.

여성성의 수준에 의한 진로유형과 직업의 전통성의 검증결과(표 3)는 여성성이 직업선택에만 영향을 끼쳤을 뿐, 진로유형의 선택에는

표 2. 남성성에 의한 전통성

남성성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상	중	하	상	중	하
M	1.76	1.96	2.01	2.97	3.07	3.03
SD	.62	.58	.57	.53	.52	.58
N	180	244	174	180	244	174
F	9.15***			1.84		

***p < .001

표 3. 여성성에 의한 전통성

여성성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상	중	하	상	중	하
M	1.96	1.91	1.86	3.11	3.04	2.93
SD	.56	.57	.66	.57	.53	.53
N	171	238	191	171	238	191
F	1.35			5.52***		

***p < .001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여성성이 높은 여대생은 여성성이 낮은 여대생보다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인 남성적 유형, 여성적 유형, 양성적 유형, 미분화적 유형별로 진로유형과 직업의 전통성을 검증한 결과(표 4)에 의하면, 진로유형과 직업의 선택 모두에게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즉 남성적 유형은 여성적 유형 및 양성적 유형보다 더 비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여성적 유형은 남성적 유형 및 양성적 유형보다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다.

표 4. 성역할 정체감 유형별 전통성

유형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남성적	1.75	.63	146	2.94	.56	146
여성적	2.01	.55	153	3.14	.50	153
양성적	1.90	.56	145	3.07	.59	145
미분화적	1.99	.61	154	2.95	.49	154
F	6.31***			4.75**		

***p < .001, **p < .01

표 5. 성역할 태도에 의한 전통성

성역할 태도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전통적	2.14	.57	195	3.11	.52	195
중립적	1.94	.59	216	3.02	.55	216
진보적	1.66	.53	188	2.94	.55	188
F	34.69***			4.98**		

***p < .001, **p < .01

2. 성역할 태도에 의한 결과

표 5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에 따라 진로유형의 선택과 직업선택 모두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일수록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다. 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대생일수록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다.

3. 성역할 영향 진로동기에 의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을 받는 진로동기들-성공회피, 진로와 가정 갈등, 중요타자의 영향-에

의한 검증결과들 (표 6, 표 7, 표 8)에 의하면, 성공회피는 진로유형의 선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중요남성의 영향도 진로유형의 선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진로와 가정

갈등은 진로유형이나 직업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성공회피 동기가 낮은 여대생들은 그 동기가 더 높은 여대생들 보다 더 비전통적인 진로유형을 선택했으며, 중요남성의

표 6. 성공회피동기에 의한 전통성

회 피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상	1.98	.63	201	3.04	.52	201
중	1.98	.59	211	3.05	.52	211
하	1.75	.54	188	2.99	.59	188
F	9.12***			.75		

***p < .001

표 7. 진로와 가정 갈등에 의한 전통성

갈 등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상	1.93	.68	163	3.06	.49	163
중	1.94	.59	252	3.06	.54	252
하	1.86	.52	185	2.95	.59	185
F	.98			2.56		

표 8. 중요남성의 영향에 의한 전통성

영 향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상	2.30	.57	165	3.04	.52	165
중	1.92	.51	262	3.06	.55	262
하	1.54	.51	172	2.96	.55	172
F	87.99***			1.93		

***p < .001

영향을 많이 받는 여대생일수록 더 전통적인 진로유형을 선택하였다.

4. 전공의 여성구성 비율에 의한 결과

표 9.에 의하면, 여대생들이 전공하는 학과의 여성구성비율은 직업선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여성구성비율이 높은 여성다수 학과를 전공하는 여대생은 여성소수학과를 전공하는 여대생들 보다 더 전통적인 직업을 선택하였다.

5. 수학(math) 회피에 의한 결과

표 10에 의하면, 수학회피는 진로유형의 선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수학회피가 높은 여대생이 수학회피가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다.

표 11에 의하면, 전통적 진로유형선택에 중요하다고 나타난 변인들은 6개이었으며 표준화된 값의 크기에 따라 중요남성의 영향, 성역할 태도, 남성성, 성공회피, 수학(math) 회피의 순서로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 12에 의하면, 전통적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은 3개이며, 전공의 여성비율, 성역할 태도, 여성성의 순서로 기여했다.

6.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

표 11에 의하면, 전통적 진로유형선택에 중요하다고 나타난 변인들은 6개이었으며 표준화된 값의 크기에 따라 중요남성의 영향, 성역할 태도, 남성성, 성공회피, 수학(math) 회피의 순서로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 12에 의하면, 전통적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은 3개이며, 전공의 여성비율, 성역할 태도, 여성성의 순서로 기여했다.

표 9. 전공의 여성구성비율에 의한 전통성

전공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여성다수	1.97	.59	200	3.33	.53	200
성균형	1.93	.60	200	2.92	.39	200
여성소수	1.84	.60	200	2.82	.56	200
F		2.44			57.66***	

***p < .001

표 10. 수학(math) 회피에 의한 전통성

회피	진로유형 전통성			직업 전통성		
	M	SD	N	M	SD	N
상	2.15	.59	151	3.07	.44	151
중	1.95	.60	191	3.00	.55	191
하	1.89	.59	258	3.01	.59	258
F		10.08***			.87	

***p < .001

표 11. 진로유형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변인	R	R ²	beta	T	P
중요남성	.479	.229	.400	9.250	.000
성역할태도	.488	.238	.136	3.935	.000
남성성	.494	.244	-.097	-2.830	.005
수학(math)	.507	.257	.078	2.748	.019
성공회피	.515	.265	.060	2.143	.027
상수				10.095	.000

N = 600)

표 12.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변인	R	R ²	beta	T	P
전공	.362	.131	.352	9.192	.000
성역할태도	.385	.148	.147	2.868	.003
여성성	.400	.160	.107	2.533	.006
상수				15.079	.000

N = 600)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성과 여성성 각각의 수준에 따라 진로유형 및 직업선택의 결과를 보면 남성성이 낮은 여대생들이 높은 여대생들 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으며 남성성의 수준에 따라 직업선택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여성성의 수준에 따라 진로유형의 선택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직업선택에서는 여성성의 수준이 높은 여대생들이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다. 여대생들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유형과 직업의 선택모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적 유형(남성성은 높고 여성성이 낮은 유형)은 다른 유형들(여성적, 양성적, 미분화적)보다 더 비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비전통적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반면에, 여성적 유형(여성성은 높고 남성성은 낮은 유형)은 다른 유형들 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여대생들은 진보적 태도를 가진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과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다. 성역할 영향 진로동기에 의한 검증결과는 성공회피 동기가 높은 여대생들이 그 동기가 낮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직업선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중요남성의 영향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었던 반면에 직업선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진로와 가정갈등을 진로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못하였다.

여성구성비율이 높은 학과를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낮은 학과를 전공하는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였으나 학과의 여성구성비율에 따라 진로유형의 선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수학(math)회피가 낮은 여대생들이 수학(math)회피가 높은 여대생들보다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였으나 직업선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제 독립변인들이 전통적 진로유형과 전통적 직업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여대생으로 하여금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도록 기여하는 변인들은 중요남성의 영향, 성역할 태도, 남성성, 수학(math)회피, 성공회피동기의 순이었다. 전통적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전공학과의 여성구성비율, 성역할 태도, 여성성의 순이었다.

전통적 진로유형의 선택과 전통적 직업선택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였다. 또 각각의 남성성의 수준 또는 여성성의 수준보다는 남성성은 높으면서 여성성이 낮은 성역할 정체감(남성적 유형) 또는 여성성은 높으면서 남성성이 낮은 성역할 정체감(여성적 유형)이 진로유형 및 직업을 전통적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는데만 영향을 미친 변인은 중요남성의 영향, 낮은 남성성, 높은수학(math)회피, 높은 성공회피등이 있고, 반면에 전통적 직업선택에만 영향을 준 변인은 전공학과의 높은 여성구성비율, 높은 여성성이었다.

논의 및 결론

성역할 정체감 중 남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남성 다수” 직업인 비전통적 직업을 선호하고 여성성을 가진 여대생은 “여성다수” 직업인 전통적 직업을 선호한다고 밝힌 연구들 (Gianakos & Subich, 1988; Harren, Kass, Tinsely, & Moreland, 1979; Wertheim, Widom, & Wortzel, 1978; 김희정, 1986)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본 연구에서 진로유형선택에서는 남성성만이 영향을 주었고 직업선택에서는 여성성만이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성이 여성의 전통적 직업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Fassinger(1990)의 연구에서는 남성성인 주동성(agentive)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다르다. 또 이재창, 임용자(1993)의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나 남성성이 여성의 전통적 직업선택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직업선택에서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여성성이 부재한 남성성”, 또는 “남성성이 부재한 여성성”이 직업선택의 전통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여성성이 부재한 동시에 남성성의 존재”한 성역할 정체감 범주인 남성적 유형이 여대생의 비전통적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었던 선행연구들 (Wong, Kettlewell, Sproule, 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은 전통적 직업영역 또는 교육영역을 선호하고 비전통적 태도 즉 민주적, 진보적 또는 페미니스트 태도를 가진 여성은 비전통적 직업영역 또는 교육영역을 선호하거나 진로지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Fassinger 1985, 1990; Wertheim et al., 1978; Yanico, 1981; 임용자, 1994)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그대로 일치한다.

특히 Fassinger(1985)의 연구에서 페미니스트 지향적 태도는 진로지향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다음단계에서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진로유형선택의 전통성에 영향을 주며, 그 다음 단계인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고 그 다음단계에서 전통적 직업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써 첫단계인 진로지향성의 단계와 둘째 단계인 직업선택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된 진로동기인 여성의 높은 성공회피동기는 여성의 낮은 진로포부를 예측해 주는 변인이라고 밝힌 Esposito(1977)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한다. 즉 높은 성공회피동기는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하게 함으로서 더 낮은 진로동기를 나타내 주었다. 또 Janda, Grady, & Capps(1978)의 연구에서는 자기의 성과 반대되는 성의 직업 즉 여성의 경우 남성의 직업에 나타내는 반응이 성공회피라고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공회피가 직업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Janda 등(1978)의 연구에서는 성과 직업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공회피가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차와 반대성의 직업반응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직업과 가정사이의 역할 갈등이 진로와 결혼에 관련된 생애유형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Karpicke(1978)의 분석과 Greenglass와 Devins(1982)의 연구에서 밝혀진 진로와 결

혼사이의 상대적 중요성과 진로계획과의 상관, 그리고 진로와 가정 사이의 갈등과 진로동기와의 상관을 밝힌 연구(Farmer, 1984)의 결과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가정 사이의 갈등은 진로 유형 및 직업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Bridge(1987)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대생들은 진로계획에서 당면하는 역할갈등에 대하여 비현실적인 지각을 한다는 주장을 반영했다고 시사된다. 따라서 진로교육과 상담에서 진로와 가정 사이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지각하도록 다루어야 한다는 Fitzgerald와 Crites(1980)의 주장을 고려해야 된다.

Karpicke(1978)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그들의 중요남성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지각에 따라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진로선택을 한다고 하여 중요남성에 대한 지각이 여대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남성의 영향이 직업선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진로유형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른 변인들과 그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면 진로유형전통성에 기여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들이 중요남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더 전통적 진로유형을 선택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연구(장석민, 임재석, 송병국, 1989)에서 밝혀진 직업의 성역할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태도가 폐쇄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시사된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학생의 경우, 비전통 진로참여자에게는 중요남성의 지지나 격려가 중요하다고 밝힌 연구들(Weishar, Green, & Graighead, 1981; Houser & Garvey, 1983)의 결론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중요남성의 영향은 여대생들로 하여금 전통적 진로선택을 하도록 금

정적으로, 비전통적 진로선택을 하는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전공하는 학과의 여성구성비율에 의해 진로유형의 선택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직업선택의 전통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공의 여성구성비율은 직업선택의 전통성에 기여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가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할지라도 전공학과의 성관련 특성인 여성구성비율은 여성의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여러연구자들(Blackman, 1986; Chatterjee & McCarrey, 1989; Goldman & Hewitt, 1976; Max, 1982, Sells, 1982)은 학업성취를 예언해 주는 변인이 언어능력이라면 기술직업사회에서의 진로결정에 관건이 되는 능력은 수학(math)이라고 분석하면서 수학교육과 수학훈련과정에서 성차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Blackman(1986)의 연구에서는 수학(math) 영역의 교육과 훈련과정에 참석 또는 회피 여부가 성역할 정체감과 태도에 영향을 주며 특히 직업영역의 흥미를 예언해 주는 강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학회피는 여대생의 진로유형의 선택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직업선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Blackman(1986)의 연구와 같이 수학참석 집단이 비참석집단에 비해 더 "남성다수" 직업을 선택했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수학에 대한 능력이나 흥미와 직업선택간의 불일치성을 반영해 줄 뿐 아니라 여성의 능력과 흥미의 비활용으로 인한 비전통적인 진로영역으로의 직업기회에 대한 제약을 회복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남

성성의 수준 또는 여성성 수준, 성역할 정체감의 범주인 여성성이 부재한 남성적 유형 또는 남성성이 부재한 여성적 유형,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을 받는 진로동기들인 성공회피, 중요남성의 영향, 그리고 수학회피와 전공의 여성구성비율 등은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유형의 선택과 또는 전통적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다. 그러나 진로유형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은 남성성의 수준, 성역할 태도, 성공회피, 중요남성의 영향, 수학회피 등이며 그 상대적 기여도는 다르다. 또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들은 여성성의 수준, 성역할 태도, 전공의 여성구성비율 등이며 그 상대적 기여도는 다르다. 진로유형의 전통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인은 중요남성의 영향이고 직업전통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변인은 전공의 여성구성비율이다. 또 성역할 태도는 진로유형과 직업의 전통성에 모두 두번째로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남성성 및 여성성의 각각의 수준이 종속변인에 각기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별 특성인 "여성성이 부재한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 그리고 "남성성이 부재한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은 진로유형과 직업의 선택 모두에서 그 전통성을 예측해 주는 강력한 변인이다. 그외에 전통적 성역할은 진로동기에 배타적 영향을 발휘하므로 그 변인들은 극복되어야 할 장애들이다. 대학의 전공영역을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구성된 역할분포비율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성다수", "성균형", "여성소수 또는 남성다수" 개념은 여성의 진로영역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직업선택의 예측변인으로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희정(1986). 직업의 성역할 관념과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임용자(1993). 여대생의 성역할 특성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9, 115-141. 서울: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용자(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석민, 임재석, 송병국(1989). 진로교육 연구사업 보고서(1987-198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민(1991). 진로성숙과 관련변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mquist, E., & Angrist, S.(1970). Career salience and atypicality of occupational choice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2, 242-249.
- Bassoff, E.S., & Glass, G.V.(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s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twenty-six stud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105-112.
- Betz, E. L.(1984 a) A study on career patterns of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49-264.
- Betz, N. (1978). Prevalence, distribution, and correlates of math anxiety in colla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41-448.
- Betz, N. E., Heesacker, R. S., & Shuttlesworth, C. (1990). Moderators of the congruence and realism of major and occupation plans in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69-276.
- Betz, N. E., & Fitzgerald, L. F.(1987).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Blackman, S. (1986). The masculinity-feminity of women who study college mathematics. *Sex Roles*, 15, 33-41.
- Bridges, J. S.(1987) College females' perceptions of adults' roles and occupational fields for women. *Sex roles*, 16, 591-604
- Capurso, R. J., & Blocher, D. H.(1985). The effects of sex role consistent and inconsistent information on the social perception of complex, noncomplex, androgynous, and sex-typed wo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79-91.
- Chatterjee, J., & McCarry, M.(1989). Sex role attitudes of self and those inferred of peers, performance, and career opportunities as reported by women in nontraditional vs. traditional training programs. *Sex Roles*, 21, 653-669.

- Esposito, R. P.(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 to avoid succes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 347-357.
- Farmer, H. S.(1971). Helping women to resolve the home-careerconflict. *The Personnel & Guidance Journal, 149*, 795-801.
- ___(1984). Development of a measure of home-career conflict to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women. *Sex Roles, 10*, 663-675.
- Fassinger, R. E.(1985). A causal model of college women's career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23-153.
- ___(1990). Causal models of career choice in the two sampl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225-248.
- Fitzgerald, L. F., & Crites, J. O.(1980).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do we know?, what do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4-62.
- Gianakos, I., & Subich, L.(1988). Student sex and sex role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259-268.
- Goldman, R. D. & Hewitt, B.N.(1976). The scholastic aptitude test "explains" why college men major in science more often th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50-54.
- Gottfredson, L.S.(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 Greenglass, E.R. & Devins, R.(1982). Factors related to marriage and career plans in unmarried women. *Sex Roles, 8*, 57-71.
- Harren, V. A., Kass, R. A., Tinsley, H. E. A., & Moreland, J. R.(1973). Influence of gender, sex-role attitude, and cognitive complexity on gender dominant career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227-234.
- Helson, R., & Picano, J.(1990). Is the traditional role bad for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311-320.
- Houser, B. B., & Garvey, C.(1983). The impact of family, peers and educational personnel upo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35-44.
- Janda, L.H., O'Grady, K.E., & Capps, C.F.(1978). Fear of success in males and females in sex linked occupations. *Sex Roles, 4*. 43-50
- Jenkins, S.R.(1989). Longitudinal prediction of women's careers: psychological, behavior, and social-structural infl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204-235.

- Karpicke, S.(1978). *A Study of sex differences in and counselor' perceptions of influences on college students' career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_____(1980). Perceived and real sex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240-245.
- Lawrence, W., & Brown, D.(1976).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43-52.
- Marshall, S. J., & Wijting, J. P.(1980). Relationship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x-role identity to college women's career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99-311.
- Max, C. E.(1982). Career paths for women in physics. in S. M. Humpherys(Ed.),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pp. 99-118).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Inc.
- McDonald, M.L.(1991). *Predictiong the career cho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ing among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Orcutt, M.A., & Walsh, M.B.(1979). Traditionality and congruence of career aspiration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1.
- Raphael, K. G., & Gorman, B. S. (1986). College women's Holland-theme congruence: effects of self-knowledge and subjective occupational surct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143-147.
- Sells, L.W.(1982). Leverage for equal opportunity through mastery of mathematics in S.M. Humphrey(Ed.), *Women and minorities in science* (pp.7-26).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Inc.
- Stake, J. E.(1979). Women's self-estimates of competene and the resolution of the career/home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33-42.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Brothers.
- Weishaar, M. E. Green, B. J. & Graighead, L. W.(1981). Primary influencers of initial vocational choice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67-78.
- Wertheim, E. G., Widom, C.P. Wortzel, L.H.(1978). Multivariate analysis of male and female professional career choice correlat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 234-242.
- Wong, P.T.P., Kettlewell, G., & Sproule,

C.F.(1985). On the importance of being masculine: sex role, attribution, and women's career achievement. *Sex Roles, 12*, 757-769.

Yanico, B. J.(1981). Sex-role self concept and attitudes related to occupational daydreams and future fantasi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90-101.

Yanico B. J., Hardin, S.I., & McLaughlin, K.B.(1978). Androgyny and traditional versus nontraditional major choice among college fresh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261-269.

The Effects of Sex-Role related Psychological Variables on Traditionality of Career Pattern Choices and Vocational Choices among College Women

Jae-Chang Lee and Yong-Ja Y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x-role related variables -sex-role identities, sex-role attitudes, sex-role related career motivations, math avoidance, and female dominances of college majors-on the traditionalities of career pattern choices and vocational choices among college women.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200 female dominant subject-majoring college women, 200 sex neutral subject-majoring college women and 200 male dominant subject-majoring college women. Purposive and stratified sampling method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test, Scheff test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career pattern's traditionalities or the vocational traditionalities by means of respective independent variables. The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se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career pattern choices and vocational choice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sex-role related variables which had influences on traditionality of career pattern choices were college women's masculinity, their sex-role attitude, their success avoidance, their importance of significant men, and their math avoidance, identified, while the variables, on the traditionality of vocational choices were their sex-role attitudes, their femininity and the female dominance of their college major.

The ways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have influences on the traditionalities were as follows: the traditionality in choosing career pattern was related positively to college women's low masculinity, their traditional sex-role attitude, their high success avoidance, their high importance of significant men and their high math avoidance while the traditionality in choosing a vocation, to their high femininity, their sex-role attitude and the female dominance of their college majors.